

# 일본 서점가에도 '천황 신드롬'

## '천황비판서' 철거 지시... 神田 '고서축제'도 중지해

천황의 병상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사회가 온통 '집단병리증상'에 휩싸인 가운데, 동경의 한 대형서점 본사가 지방 체인점에 "천황제를 비판한 책은 코너에 두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출판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매년 독서주간에 열리던 일본의 명물 '간다(神田) 고서축제'마저도 중지됨으로써 무성한 화제를 낳고 있다. 최근 「아사히(朝日)신문」은 "自肅의 거리를 걷다"라는 일련의 기획 기사를 통해 그 내막을 파헤쳐 흥미를 준다.

### 대형서점 本社서 체인점에 '비밀지령'

"천황이 죽고 황태자가 皇位를 계승하는 사태를 맞게 되면 서점 매장에서 천황제 비판의 책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 일본의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같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문의 진원은, 동경 시내의 어떤 대형서점 본사가 전국의 체인서점에 보낸 '극비지령'. 거기에 이렇게 씌어 있었다. "천황폐하에 관한 책의 특별코너를 설치하는 것은 서거한 후로 하되, 거기에 비판서를 놓아서는 안된다."

서점측에 의하면, 지령을 내린 것은 구매담당 부사장. 천황의 대량 각혈이 신문에 보도된 지난 9월20일이었다. "만약의 경우의 코너 설치는 '천황을 애도'하는데 주안을 두고 昭和史를 중심으로 하되 천황비판 관련서적은 진열하지 말라"는 것이 지령의 요지.

그로부터 한달. 지령은 아직도 살아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부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는 그에 관한 북페어를 하는 수가 있다. '미시마 유끼오(三島由紀夫) 페어'가 그런 예다. 그런 경우, 그에 관해 비판적인 책은 놓지 않는다. 천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천황비판서는 종전대로 역사코너에 둔다. 점내에서 철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합서점이므로 좌·우 어느쪽에나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천황을 찬미하는 코너를 특별하려는 의도는 없다. 궁성 앞의 대열을 보면 천황을 경애하고 있는 시민이 상당히 많다. 천황을 흠모하는 책의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런 고객을 위한 것이다. 일본인은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는다. 이런 소동도 一過性일 것이다."

戰前으로 되돌아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서점은 '사상의 자유시장' 反論도

지시를 받은 사원측의 반발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지시서를 보았을 때는 '심하다'고 생각했다. 조합로서는 경영측의 진의를 단체교섭을 통해 규명한 뒤 대응을 결정할 생각이다. 그때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사장은 "단체교섭으로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자세다.

이에 대해 최근에 발매된 「천황의 葬儀」의 저자 사사카와 (笹川紀勝·국제기독교대) 교수(헌법)는 "서점이란 국민의 언론, 표현의 자유에 공헌하는, 말하자면 '사상의 자유시장'이다. 그런데 스스로 제한을 가하게 되면 편향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결과가 된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종래 처럼 서가에는 꽃아 두어도 독자의 관심에 부응하는 특별코너에는 놓지 않는다면 중요한 테마의 일면만 전달하게 된다. 천황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커다란 쟁점이 되어 있는 이상, 서점은 그 논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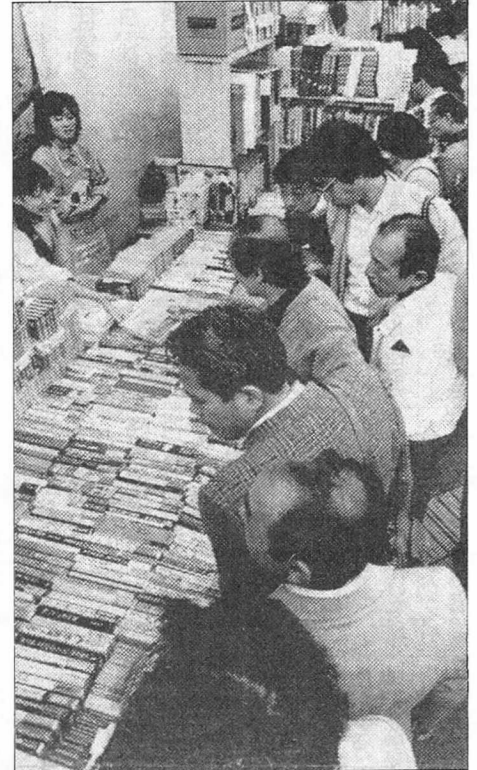
「미카도의 肖像」등을 쓴 논픽션작가 이노세(猪瀬直樹)씨는 "독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천황의 정당한 평가이다. 찬양이든 비판이든, 선택하는 사람은 독자이지 서점이 아니다. 찬양하는 쪽이나 비판하는 쪽이나 각기 상대방의 정보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서점이 어떤 기준으로 비판서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고개를 가우뚱했다.

현재 서점에 나돌고 있는 천황제 관계도서 는 약 200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코너를 설치한 서점은 거의 없다.

### 수십만 人波 湧청이던 '동경의 명물'

올해로써 29회째를 맞는 간다(神田)의 '고서 축제'가 중지된 것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축제는 매년 독서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동경의 명물. 그것이 천황의 와병으로 올해는 중지된 것이다. 神田 고서점연맹(130개점)의 축제 실행위원장인 다카야마(高山)씨는 요즘 매일같이 임원들과 회의를 거듭하며 '自肅'의 뒷처리에 분주하다. 축제 준비를 위해 포스터, 제등, 현수막 등의 제작비로 이미 수백만엔을 들었다. 어느 서점이든 축제

**동경의 한 대형서점 본사가**  
**전국의 체인서점에 "천황 비판서를**  
**특별코너에 두지 말라"는**  
**비밀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출판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해마다**  
**독서주간에 열리던 '고서축제'마저**  
**중지되어, 神田의 고서점들은**  
**쌓인 在庫에 한숨을 짓고 있다.**



동경의 명물인 神田의 고서 축제. 예년에 흥청거리던 이런 광경은 올해에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에서 팔 계획이었던 수십만권의 재고를 갖게되었다. '자숙'의 영향은 적지 않다.

간다 진보쵸(神保町)의 네거리에서 스루가다이(駿河台) 아래의 네거리에 걸쳐 문학서, 이공계 서적, 예술서 등 갖가지 책을 갖춘 고서점이 처마를 맞대고 줄지어 있다. 그 수는 130집. 일본 최대의 고서점가이다. 일본에 드나드는 한국인들도 반드시 찾는 곳이다.

어떤 분야이든 필요한 참고서적은 고루 갖추고 있어, 늘 학자·문필가·학생·교사들로 붐빈다. 한때 고객이 줄었던 적이 있어서, 1960년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가 기획되었다. 축제에는 전국에서 고서 팬이 모여들어, 1주일 동안에 연인원 20~30만명을 헤아린다. 이때 줄잡아 50만권이 팔린다.

축제를 중지키로 확정한 것은 지난 9월 하순이었다. 각지에서 축제의 중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서를 파는 행사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만일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면 곤란하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대세를 차지했다.

### 130개 고서점 집결... '在庫'에 울상

축제가 중지되자, 한 서점주인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푸념했다. 그는 이제까지 소규모로 民話라든가 아동문학서 등 어린이관계의 고서만을 취급해왔다. 전문서적을 취급하는 어느 서점과 달리 평소에는 고객이 적다. 그래도 매년 고서 축제 때는 책값도 싸기 때문에 동경시내는 물론 멀리 관동지방이나 북해도 등지에서도 연일 가족동반으로 고객이 찾아 주었다.

"예년에는 고서 축제 1주일 동안에 연간 매출의 2할 가까이나 올랐다. 이것이 다음해의 자금이 된다. 올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는지."

1년이나 걸려서 준비했다는 약 100상자분의 책이 개봉도 안한 채 쌓여 있었다. 어느 서점이든 고서 축제를 목표로 1년 동안 계속 고서를 사들여 창고에 쌓아둔다. 서점마다 3천~5천권을 모은다. 창고료만도 매월 10만엔이나 지불한다. 팔 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올해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고서狂'으로 고서 축제 때면 100엔짜리 특가본 속에서 진귀본을 발견하는 재미를 맛본다는 한 회사 사장은 "증지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가무음곡도 아니고..."라고 고개를 가우뚱했다.

고서점연맹의 인사들은 중지된 축제 대신 무엇인가 행사를 벌여야 한다고 연일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내년 3월에 지하철 半藏門線이 간다 진보쵸역에 연결되는 것을 기회로, 현지의 상점가와 기념 세일을 해보자는 안도 나와 있다.